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연중 제 30 주일]

2009 년 10 월 25 일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조정훈, 이제니수 로사
다음주 독서: 이준범 베드로, 김다은 레아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강선우 마르가리따

+ 지난주 우리의 정성

이번주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다음주 미사 해설: 함승효 베네딕다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유현영 사도 요한
친교실 정리: 우리구역

봉헌금: \$ 181
매일미사: \$ 15
합계: \$ 196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추후 공지
예비자 교리	매주 목요일 저녁 8 시, 사제관, 김 아셀라 수녀님
학부생 성서모임	매주 월요일 저녁 8 시 30 분, 성당 사무실, 정원심 크리스티나

† <오늘의 묵상>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눈먼 거지 바르티매오는 외칩니다. 사람들이 말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박했습니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시는 분이란 소문입니다. 그의 애절함은 마침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주님의 말씀에 그는 “걸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의 음성 듣게 됩니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을 뜬 바르티매오는 평생 ‘그 순간’을 간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감동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의 감동에 우리 역시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게 내려졌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고 따뜻한 것이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애절한 무엇이 없지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그 어떤 일’입니다. 바르티매오의 심정이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눈먼 이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눈멀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면 누구나 영적으로 눈먼 이와 같습니다.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31,7-9 < 눈먼 이와 다리저는 이가 위로받으며 돌아오리라.>
<제 2 독서> 히브리서 5,1-6 <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

화답송

◎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겔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 마르코 10,46 ~ 52

복 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걸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

[영성체송]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오늘의 성가] 입당: 329 봉헌: 219 성체: 154 퇴장: 238

† <생명의 말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고해사목부

저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거지 바르티매오의 만남. 그때 당시 저는 눈먼 거지로 불렸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이름을 기억해 주거나 불러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야! 거지”가 저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릴 적 눈병을 치료하지 않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있었지만 눈이 멀자 모두 떠났습니다. 친한 친구도 부모님이 함께 놀면 부정 탄다고 해서 올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전 그렇게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언자요, 여러 기적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고, 거기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까지도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저를 더욱 호기심에 차게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게 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 나의 소원을 말씀 드리겠다고. 그날도 전 길에 나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발로 차고 구석으로 절 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몰랐기에 오히려 전 더 큰 소리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그러니 용기를 내라고 하며 누가 절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겹옷을 벗어 던지고 그를 따라 주님께 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너무도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고 많은 시간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준비했던 말.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제 눈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힘을 쥐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미소 띤 얼굴로 계셨습니다. 전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은 거지 바르티매오를 통해 찬미 받으소서.”

그렇게 저는 눈을 뗀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열두 사도는 아니었지만 주님을 볼 수 있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제 삶이 주님으로 인해 완전히 변했기에 이 글을 씁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눈먼 거지 바르티매오를 하나의 사람으로 대해주셨고 벗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전 오늘도 주님을 위해 그분의 뒤를 따라 제 십자가를 껴안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니 몸과 맘이 건강해지네.

주님께 힘든 몸을 맡겼더니 끌어 안아주시네.

지금도 주님은 청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우리에게 물으시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 <알려드립니다>

❖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10/24일과 11/7일 미사는 St. Paul 본당 일정때문에 일요일 오후 2:30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주일 동안 미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0/25 (일) 오후 2:30; 10/31 (토) 오후 5:00 * 11/8 (일) 오후 2:30

* 10/31 토요일은 낮에는 Football 경기가 있고, 오후에는 Library Mall 과 State St. 에서 Halloween Festival (FreakFest) 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Parking Ramp 와 성당 주변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음주는 매월 마지막주에 있는 2차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연말까지 모아지는 2차 헌금은 우리 공동체가 매년 St. Paul 본당에 내는 성당사용료 (\$2000 - \$3000) 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입니다. 2차 헌금을 위한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알아둘 교리> 예수님의 성심

교회는 예수님의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들을 똑같이 공경하며, 그분의 탄생과 수난 그리고 죽으심의 신비에 대해서도 공경의 예를 드린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마음을 특별히 공경하는 관습이 있어 왔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을 위하시는 구세주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마음의 감정들, 특히 사랑이 자리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신명 6,5; 10,12; 13,3; 잠언 2,2; 23,26; 마태 22,37; 요한 16,22; 로마 5,5 참조). 사랑은 구원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고 있으므로(요한 3,16; 1요한 4,9 이하 참조), 그 사랑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특별한 사랑과 공경을 드리게 된다. 그러므로 구세주의 사랑의 상징인 예수님의 마음은 교회의 예수-성심-공경의 합당한 대상이다. 예수님의 성심은 “영원하신 아버지와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탁월한 표지와 상징으로 여겨진다.”(비오 12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수난과 죽으심 그리고 성체 성사를 통하여 특히 잘 드러나므로 십자가와 성체 신심은 예수-성심-신심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마르 10,51).